

## 노·사·민·정 합의로 임금 4000만원 수준 혁신공장 설립 운영

**차 100만대 생산 기지  
'광주형 일자리'로 열자**

〈상〉 왜 필요한가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의 주요 과제가 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절벽' 속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일자리 모델에 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고용 구조를 만든다는 형태로 반영됐다.

이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노사합의 모델이 선행다. 지난 2001년 폭스바겐이 공장 설립 장소로 포르투갈과 볼프스부르크를 놓고 고민할 무렵 5000 마르크의 임금으로 5000명을 고용하는 이른바 'Auto 5000 프로젝트'가 성사된 바 있다.

광주시는 정부의 노동개혁과 맞물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국가적 선도사업의 필요성이 입증되면서 이번 예타도 통과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대기업 생산시설을 유치하면서 제3의 법인을 신설해 이에 소속된 신규 인력에 적정임금을 적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시가 주도하고 노사, 시민이 참여해 자동차 업계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이에 따른 이른바 혁신공장을 설립해 임금을 4000만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조의 경영 파트너 인정 등 '노사 파트너십'을 구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모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저생산성-고임금-장시간노동은 고숙련-고부가가치-고임금의 선순환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무엇보다 노사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적정임금 체계를 항구적으로 유지, 담보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자동차 100만대' 예타 통과... 국가사업 확정

민선 6기 광주시의 최대 역점사업이자 광주의 미래 먹거리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오후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이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B/C)은 1.107로 통상 통과 기준인 1을 넘었으며, 종합평가(AHP)도 0.608로 통과 기준(0.5)을 거뜬히 넘겼다.

총 사업비는 광주시가 요청한 3450억원보다 420억원 줄어든 303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시의 요청에 따라 국비 부담액은 2000억원대로 유지하기로 해 시비 부담을 줄였다. 3000억원대 규모는 자동차 분야 예타 사업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다.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과 협력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나서는 등 향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장은 "기획재정부와 KDI가 국내 제조업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갈 모범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 지역 정치권의 힘도 컸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사 어떻게 했길래... 지난 8일 영광 칠산대교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된 길이 102m의 상판이 바다 쪽으로 기울면서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인근 칠산타워에서 바라본 사고현장. / 영광=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대우·대보·남양건설 등 시공 칠산대교 상판 바다로 '쿵'

6명 부상...부실시공·설계 조사

영광 칠산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시소처럼 기울어 추락하면서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사고원인과 함께 부실 설계·시공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 6면〉  
10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하 익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7분께 영광군 염산면 칠산대교 공사 현장 14번 교각에서 상판(102m)이 바다 쪽으로 기울 사고는 교각과 상판을 고정해주는 32개의 강봉(쇠기둥) 파손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익산청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학계 전문가 등 8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강봉 파손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며, 부실·과실 여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영광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와 부실 공사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상판은 철거 후 재설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한 칠산대교 건설공사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 영광 칠산대교 사고



심종성 사고조사위원장은 "상판은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 없다"면서 "상판의 안전도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두 1467억원이 투입되는 영광-해제 도로공사(총 길이 9.52km) 구간 중 하나인 칠산대교(길이 1.82km)는 2011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해 2012년 9월 착공했다. 발주처는 익산청이며 시공은 (주)대우건설, (주)대보건설, (주)남양건설 등 6개 회사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영광=박형진기자 qkrhj@

## 사드 한국 배치...동북아 '新냉전' 격랑

내년 말 실전 운용...중·러 반발  
북한, SLMB 발사 무력시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한미는 8일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제승 실장은

"사드배치 부지 선정은 완성단계에 와 있다"면서 "선정 결과는 늦어도 수주 내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배치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오산,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다음 날인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심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40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